

"제주는 세계 전쟁문화유적의 현장"

제3부 : 군사요새로 신음하는 제주-44 일본측 비교조사·국제워크숍
"제주는 세계 전쟁문화유적의 현장"

입력 : 2008. 07.03. 00:00:00



▲일명 '전차굴'로 알려진 가마오름 동굴진지 내부. 갱목흙이 뚜렷이 남아있다. /사진=이승철기자

일본학계, 현장답사 이어 열띤 토론도

취재팀 가마오름 등 조사결과 발표 주목

가마오름 일본군 동굴진지 길이가 약 2km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지는 등 태평양전쟁 시기 제주도의 일본군 군사시설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제주KAL호텔 2층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역사문화진흥원 주관으로 열린 '등록문화재 일제 동굴진지 조사·활용방안 국제워크숍'은 일본측 전문가들과 국내 학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본보 6월30일자 3면>

이날 워크숍에서 본보 특별취재팀은 그동안 탐사과정 및 측량전문팀과 함께 한 가마오름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취재팀은 26일부터 30일까지 일본측 참가자들과 함께 제주도 내 일본군 군사시설을 비교 조사했다.

워크숍에는 일본에서 준비시 순부(十菱駿武·야마나시학원대학 교수), 기쿠치 미노루(菊池實·군마

현대장문화재사업단 연구원), 이시츠키 히사노리(石塚久則·나카시마비행기 오오타지하공장 보존 모임 대표), 츠카사키 마사유키(塚崎昌之·오사카경제법과대학 아시아연구소 연구원) 등 4명이 참석했다. 또 국내에서 조성윤·김동전 제주대교수, 황석규·강순원 제주역사문화진흥원 연구원, 김경주 탐라매장문화재연구원 조사부장 및 제주도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일본측 학자들이 본보 취재팀과 함께 서우봉 동굴진지 내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국제워크숍에서 취재팀이 그동안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 공개된 제주시 한경면 소재 가마오름 동굴진지 규모는 1천9백1m로 약 2km에 달한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셋알오름(알오름)의 지하호 규모 1천2백20m보다도 8백여m 긴 초대형 동굴진지라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또한 전체적인 양상은 하부층과 중간지점, 오름 정상부의 상부층 등 3단구조로 제주도나 일본

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사례에 해당된다. 가마오름에 구축된 동굴진지는 모두 17 곳으로 이 가운데 14곳이 진입이 가능한 동굴진지다.

현재 평화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는 동굴진지의 경우 길이가 9백69m(공개구간 3백34m)로 가마오름 동굴진지 가운데 가장 길다. 이 동굴진지 미공개구간인 경우는 아직까지 구축 당시의 모습이 상당히 잘 남아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또한 일명 '전차굴'로 알려진 동굴진지 역시 구축 당시의 모습이 잘 보존돼 있는 곳 중 하나다. 이곳에 남아있는 갯목 흔적은 제주도내에서 가장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존필요성이 제기된다.

가마오름 동굴진지의 규모와 전체적인 구조 및 분포양상이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가마오름은 현재 박물관측에서 산책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공개구간의 연장도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하지만 이로 인해 스코리아층으로 구성된 동굴진지의 훼손우려가 제기된다. 때문에 가마오름 동굴진지의 중요성을 감안할 경우 성급한 개발보다는 철저한 조사와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토대로 보존할 곳은 원형대로 보존하고, 활용할 곳은 역사교육의 장으로 일반에 개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특별취재팀=이윤형·표성준·이승철기자

[일본측 전문가 의견]"가해자 역사흔적 중요"

日 본토보다 제주도가 잘 남아



▲기구치 미노루씨, 슈비시 쉰부씨, 츠카사키 마사유키씨

▷기구치 미노루 연구원= 제주도의 일본군 전쟁유적은 가해자(일본)의 역사흔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제주도 일본군 진지의 기본은 중국 만주 관동군 요새로, 일본토 결전작전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동안 취재팀이 많은 양을 조사하고 기록,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놀랍다. 동굴진지 지하를 실지로 일일이 탐사하고 기록하는 모습 등은 우리가 그동안 조사했던 방식과 똑같다. 이번에 직접 보고, 설명을 듣고, 발표자료를 보면서 엄청 고생했음을 느낀다.

제주를 방문해서 보고 느낀 점은 제주도의 일본군 군사시설은 평화의 섬을 상징하는 세계전쟁 문화유적의 필드(현장)라고 할 수 있으며, 이같은 전쟁유적을 널리 알려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앞으로 한국 제주와 일본 및 중국을 포함해서 협력을 해야 한다.

▷쥬비시 숲부= 제주도에 남아있는 일본군 군사시설은 그 자체가 전쟁유적으로서 가치가 크다. 이러한 전쟁유적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작업과 함께 에코투어리즘 등 보존 활용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츠카사키 마사유키= 제주도 일본군 군사시설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즉 보편성은 일본에 남아있는 군사시설에서 찾을 수 있다면 제주도 일제 군사시설은 일본토 밖에서 본토결전에 대비해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차별되는 의미를 지닌다.

모슬포 알뜨르비행장의 경우는 일제에 의한 중국 남경폭격의 가해기지로 이용됐고, 일본병사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본토 밖의 시설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처럼 비행장과 부속시설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는 일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제주도내 각지에 구축된 동굴진지의 경우도 제주도의 특수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곳이다. 가마오름 등 제주도의 동굴진지는 일본의 지하공장이나 마쯔시로대본영과 같은 지하사령부로 일본토결전을 위해 싸우기 위한 시설이다.

당시의 일본군 군사시설이 완전하게 남아있는 곳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 즉 제주도라는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지속적인 현장조사와 함께 당시 제주도민과 동원됐던 노동자들의 문제 등에 대한 조사 및 이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별취재팀

※한라일보(www.halla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 문의 특별취재팀 064-750-2231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